

K리그 챌린지(2부리그) 10개팀 미디어데이...9개월 대장정 돌입



“올해도 힘차게 뛰겠습니다”

1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미디어데이에서 각팀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규 강원FC, 박종찬 수원FC, 노병준 대구FC, 최진수 FC안양, 윤원일 대전시티즌, 여효진 고양HFC, 정조국 안산 경찰청, 김태영 부천FC, 이완 광주FC, 변웅 충주합맥. /연합뉴스

“단언컨대, 우승 후보는 광주”

출격 준비 끝

남기일 감독대행 “광주FC ‘공격축구’로 1부리그 갈 것”

22일 대구서 개막전... 30일 광주서 부천과 홈 첫 경기

“우승후보는 우리 광주다.”, “공을 넣으면 파이팅 넘치는 춤을 추겠다.”

2014 K리그 챌린지(2부리그)의 10개팀 감독과 선수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울 시즌 포부를 밝혔다.

광주 FC에서는 남기일 감독대행과 주장 이완이 대표로 참가해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광주만의 컬러를 갖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물러서지 않는 축구’, ‘수비에 치우치지 않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울 시즌 포부를 밝힌 남 감독대행은 챌린지 리그 우승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광주를 외쳤다.

남 감독대행은 “10구단이 다 우승후보지만 굳이 한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광주를 꼽겠다”면서 1부 리그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광주는 재창단에 가까울 정도로 선수단을 대폭 개편하며 흑흑하게 올 시즌을 준비해 왔다. 새 출발의 해에 주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완은 우승을 향한 광주의 향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완은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팀분위기가 좋다”고 전했다.

얼마 전 팬들과 함께한 팬데이 출격식을 총괄하다 시피 했던 이완은 “공을 넣으면 파이팅 넘치는 춤을 추겠다”는 공약도 내어놓았다.

첫 상대인 대구에게도 광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광주를 개막전에서 만나게 된 대구 최덕주 감독은 “광주는 올해 많은 투자를 했다. 새로운 선수를 22명이나 영입했다”며 경계했고, 대구 주장 노병준도 “개막전 상대 팀인 광주는 (경계할 선수로) 꼭 한 선수를 꼽기보다 모든 선수를 다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 감독대행과 이완은 ‘대구 징크스’를 언급하며 개막전 승리를 말했다.

이완은 “(개막전에 약한) 대구의 개막 징크스가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내년엔 깨지길 바란다”며 승리를 열원했다.

남 감독대행도 “최덕주 감독님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큰 장점이지만 대구는 징크스가 있는 팀이다. 이어가겠다”고 개막전 승리를 예고했다.

미디어데이를 통해 개막 분위기를 띄운 K리그 챌린지는 오는 22일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는 22일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우승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오는 30일에는 부천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시범경기 마무리...4경기 평균자책점 2.2 ‘합격점’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완 류현진(27)이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마지막 시범경기를 무사히 마친 뒤 보완할 점과 만족스러운 점을 되짚었다.

류현진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예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말백 랜치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1이닝 7피안타 2실점(1자책)의 무난한 활구를 펼쳤다. 류현진은 경기 후 “커브가 잘 구사되지 않아 좀 더 연마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투구수 80개를 넘긴 것이 기쁘다”고 평가했다.

메이저리그 홈런이지는 “다저스의 시범경기 마감에 맞춰 류현진도 준비를 마쳤다”는 제목의 기사로 류현진의 이날 투구에 합격점을 줬다.

현지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류현진이 개막 2연전을 앞두고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고, OC레지스터도 “류현진은 시범경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했다. 랜트스포츠 “류현진은 오늘 눈부셨다”며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류현진은 호주에서도 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범경기에 4차례 등판해 16.1이닝 5실점 4자책, 평균자책점 2.20을 기록한 류현진은 23일 호주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예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 두 번째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선다.

에이스이자 개막전 1선발로 나선 클레이턴 커쇼(26)가 시범경기 때 4경기에서 14.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9.20을 기록하며 3패만 거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류현진의 어깨는 무겁다.

게다가 호주까지 비행이 16시간이나 걸리고, 시차도 10시간 이상 나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회 경험이 많은 류현진은 “선수별로 다르겠지만, 바뀐 장소에 적응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예상했다. 다저스 선수들은 이날 경기 후 호주로 떠나 22일 개막전에 대비한다. /연합뉴스

KIA, 챔피언스 필드 60억 추가 투입

불펜 직선구조 확장 등 리모델링

챔피언스필드에 60억원이 투입되는 ‘고품격 룩 앤드 필(Look & Feel)’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세계적인 명품 야구장으로 만들기 위해 올 한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보완해 메이저리그 구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격 Look & Feel’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KIA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고의 관람환경을 조성해 ‘보는 재미’를 증대하고 팬과 선수들의 자부심을 키워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시즌 개막전까지 선수단 출입구와 클럽하우스 출입구, 메인 로비 등의 외관을 꾸며 야구장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중앙매표소쪽 메인 출입구에는 대형 사인물을 설치해 구장의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팬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올스타전(7월18일)까지 확장한다.

여성과 어린이가 팬을 배려해 여성 전용 라운지, 키즈 카페, 수유실과 놀이방 등을 만들고 멤버십 회원 라운지

등 ‘팬 존’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야구 관람에 방해가 되는 관람석 철재 난간은 강화 유리로 교체하고, 다양한 경기 정보 제공을 위해 3·4층 사이 난간에 띠 전광판을 설치한다. 이 작업도 올스타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즌이 끝난 뒤에도 챔피언스필드의 단장은 계속된다. 경기장 내·외관의 도색을 새롭게 해서 전체적인 외양과 이미지를 고품격하고, 개장 후 지적이 되고 있는 경기장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라커룸을 새로 꾸미고 폐쇄형으로 획기적으로 설치된 불펜은 개방형 직선 구조로 확장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급 구장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KIA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야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며 “챔피언스 필드를 지역의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체부, 김연아에 청룡장 수여 추진



정부가 최근 훈장 수여 자격 여부로 논란이 된 ‘피겨여왕’ 김연아(25)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위상을 제고한 이상화, 박승희, 김연아에게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수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6종류의 훈장을 수여한다. 각 훈장은 훈격별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그러나 훈격 점수가 1424점인 김연아가 올해 바뀐 규정에 따라 청룡장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큰 논란이 일었다. 체육분야 서훈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조정됐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문체부는 ‘체육분야 유공자 서훈 기준’ 특례 조항 등을 적용해 김연아에게 청룡장 수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신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충근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